

Commentary

Commentary

Date 2025.09.15

Analyst 이지선

이 주의 투자 포인트 (9월 15일 주)

이번 주는 FOMC의 금리 인하 여부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단순히 인하 여부보다는 점도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될 향후 금리 경로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임. 주 초에는 8월 소매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으로, 시장은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7월보다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임. 동시에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 간 무역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반도체 무역 규제 완화 관련 발언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만약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미중 협의에서 완화적 메시지가 나오며, FOMC가 금리 인하 기조를 재확인한다면,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하며 시장 상승에 베팅할 가능성이 커짐.

1. 미중 무역 논의의 핵심 – 틱톡과 반도체

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

-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 허리펑 부총리가 스페인에서 회담을 열고 틱톡 매각 시한(9월 17일),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 기존 무역 갈등을 논의 중.
- 시장은 틱톡 매각** 시한이 재연장될 것으로 보지만 확정은 아님.
-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첨단 AI 칩 중국 수출 제한 강화와 중국에서의 조사 및 수입 제한 등 맞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 지속.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틱톡 매각 연장은 소셜미디어 및 광고 플랫폼의 규제 불확실성을 계속 남겨두며 단기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
- 반도체 규제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매출 가시성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확대 요소. 규제 약화 신호는 빅테크 주가에 긍정적 요소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미중 관세 갈등 이후 중국은 미국의 대두를 수입 제한하는 중

**일명 “틱톡 강제 매각법”으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을 위한 시한을 정함. 매각 사유는 개인 정부 유출 및 국가 안보 위협 우려

2. 소매 판매 지표에서 확인할 것은?

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

- 7월 소매판매는 소폭 반등, 민간 데이터(NRSInsight)에 따르면 8월도 견조한 흐름이었음.
- 소비 패턴은 할인점과 오프프라이스 강세, 중고가 리테일 부진으로 나타났음.

- 8월은 전통적으로 신학기 쇼핑 수요 강세 구간이지만, 올해는 관세 인상 우려에 따른 선제적 구매와 필수재 가격 상승이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도 가격 효과에 따른 착시일 수 있어, “건강한 소비”로 보기는 어려움.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이번 주 소매판매는 소비 모멘텀 확인 + 연준 스탠스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임.
- 지표 해석은 “강한 지표 → 경기 회복 기대 강화, 금리 인하 필요성 약화” & “약한 지표 → 소비 둔화 우려 부각”
- 결론적으로, 이미 마일드한 수준의 시장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현 시점 가장 좋다는 판단임.

3. 지표 Review 와 FOMC Preview

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

- 8월 CPI는 시장 예상과 부합했으나, 고용지표는 부진했음. 비농업 신규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전 수치도 하향 조정되었음. 이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고용시장 취약성을 드러낸 상황.
- 이번 FOMC에서 0.25%p 인하는 이미 확정적인 non-event에 가깝고, 진짜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와 기자회견을 통한 향후 인하 경로 전망임.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FOMC에서 만약 “한 번 인하 후 멈춤” 시그널 (예: 조심히 지켜봐야한다) 나오면 성장주 및 주식시장 전체와 장기채에도 부담.
- 따라서 빅테크와 장기채는 기자회견 톤에 따라 일부 차익실현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와 배우자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